

23.03.20(월)~23.03.24(금)

미디어/통신 Analyst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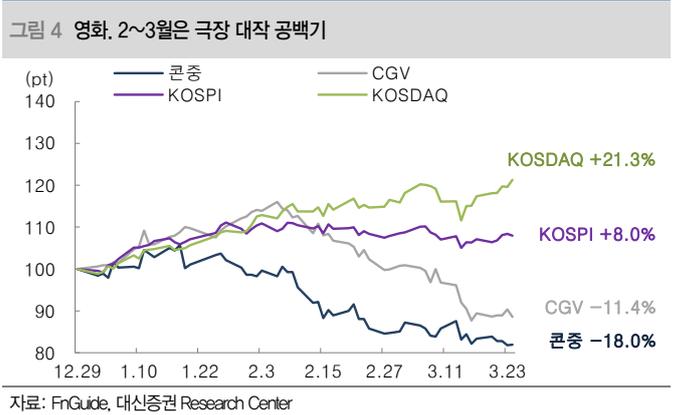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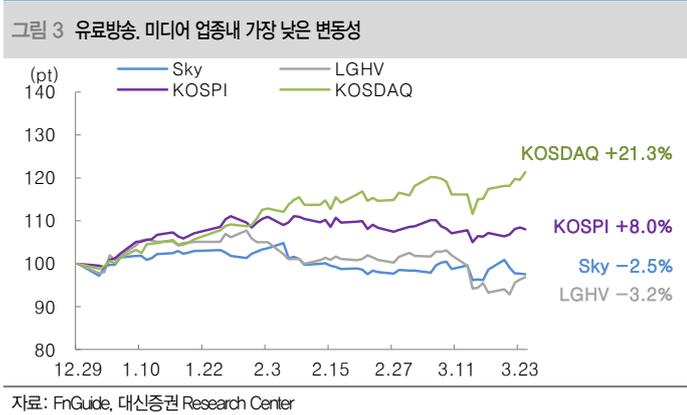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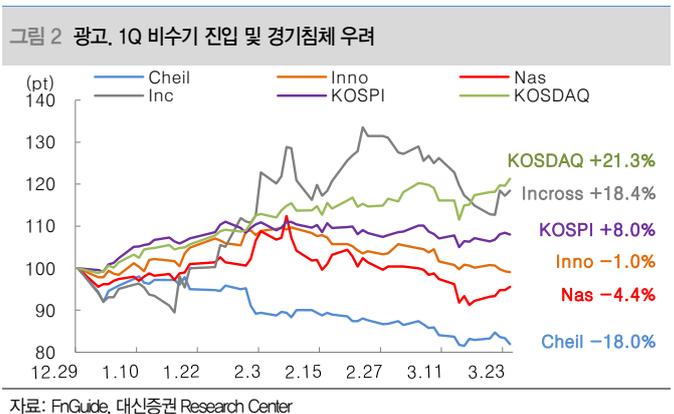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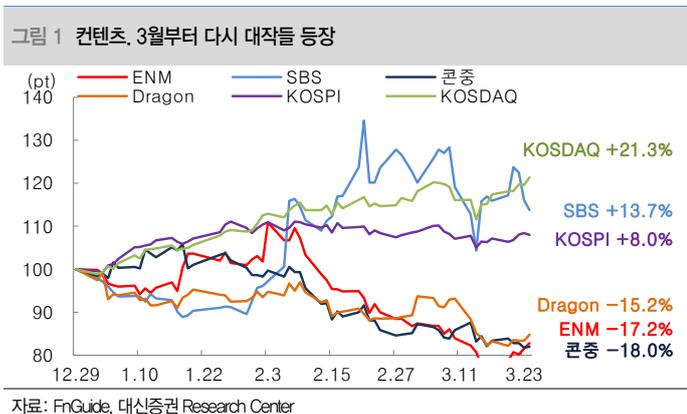
## 1. 주가 현황

구분	기업	22/12/29	03/17	03/24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주간 그래프
콘텐츠	콘텐츠리중앙 (036420)	28,550	23,800	23,400	▼ 5,150	▼ 18.0%	▼ 400	▼ 1.7%	
	스튜디오드래곤 (253450)	86,000	71,600	72,900	▼ 13,100	▼ 15.2%	▲ 1,300	▲ 1.8%	
	SBS (034120)	34,550	40,050	39,300	▲ 4,750	▲ 13.7%	▼ 750	▼ 1.9%	
	CJ ENM (035760)	104,700	82,000	86,700	▼ 18,000	▼ 17.2%	▲ 4,700	▲ 5.7%	
광고	제일기획 (030000)	23,050	19,120	18,890	▼ 4,160	▼ 18.0%	▼ 230	▼ 1.2%	
	이노션 (214320)	41,150	41,200	40,750	▼ 400	▼ 1.0%	▼ 450	▼ 1.1%	
유료	스카이라이프 (053210)	8,140	8,030	7,940	▼ 200	▼ 2.5%	▼ 90	▼ 1.1%	
방송	LG헬로비전 (037560)	4,400	4,105	4,260	▼ 140	▼ 3.2%	▲ 155	▲ 3.8%	
영화	CJ CGV (079160)	16,950	15,160	15,020	▼ 1,930	▼ 11.4%	▼ 140	▼ 0.9%	
	콘텐츠리중앙 (036420)	28,550	23,800	23,400	▼ 5,150	▼ 18.0%	▼ 400	▼ 1.7%	
지수	KOSPI	2,236.4	2,395.7	2,415.0	▲ 178.6	▲ 8.0%	▲ 19.3	▲ 0.8%	
	KOSDAQ	679.3	797.4	824.1	▲ 144.8	▲ 21.3%	▲ 26.7	▲ 3.4%	

**주가 Comment**

- 주가 코멘트: 이번 주도 뚜렷한 방향성은 부재
- 콘텐츠는 지난 주 노이즈에 의한 하락 후 이번 주는 등락을 보이다가 주 후반 상승. 중국의 게임 판호 발급 소식과 넷플릭스가 광고연동형 요금제 가입자의 예상밖 호조 소식에 급등한 영향. 콘텐츠의 주가 동인은 넷플릭스 등락, 중국 재개방 여부, 주요 작품의 시청률/인지도/노이즈 등
- 콘중의 <신성한, 이혼> 과거 작품들의 평균 상회, 드래곤의 <판도라: 조작된 낙원>은 평균 하회, SBS의 <모범택시2>는 평균 상회 하는 등 작품마다 다른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공통된 사항은 대작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과, 시청률 등의 지표와 무관하게 수익률은 좋다는 것
- 광고는 지속적으로 경기 불안감이 주가를 누르는 중. 제일기획은 2년 만에 2만원 붕괴 후 추가 하락. 23년이 21~22년보다 광고시장이 위축되고 대행사들의 실적도 21~22년보다 개선폭은 줄어들겠지만, 캡티브의 안정성 및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과 메타버스 광고의 등장 등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은 여전히 유효. 2Q 성수기 진입 시점에는 다시 비중을 확대할 필요

## 2. 주가 차트



3. 방영예정 드라마

그림 5 KBS2 <진짜가 나타났다> 3/25



자료: 네이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MBC <조선변호사> 3/31



그림 7 ENA <보라! 데보라> 4/12



그림 8 tvN <스틸러: 일곱 개의~> 4/12



4. 주간 시청률

구분	작품명	방송사	드라마 시청률 현황. 1회 vs, 주간(03/10~03/16) 시청률								주간	누적
주말	삼남매가 용감하게	KBS2									▲ 0.3	▲ 7.0
	판도라: 조작된 낙원	tvN									▼ 1.6	▼ 0.8
	꼭두의 계절	MBC									▼ 0.1	▼ 3.5
	신성한, 이혼	JTBC									▲ 1.0	▲ 0.2
	모범택시2	SBS									▲ 1.6	▲ 3.9
월화	청춘월담	tvN	▲ 0.1	▼ 0.4								
	꽃선비 열애사	SBS	▲ 3.8	▼ 0.6								
	오아시스	KBS2	▲ 0.3	▲ 0.4								
수목	성스러운 아이들	tvN	▲ 0.1	▼ 1.6								

자료: AGB Nielson,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 개봉 예정 영화

그림 9 <던전 앤 드래곤> 3/29



그림 10 <존wick4> 4/12



그림 11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5/17



그림 12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23.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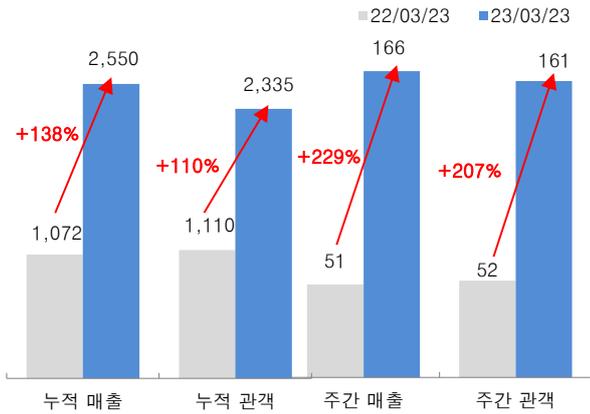
자료: 네이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6. 주간 박스오피스 현황

영화명	배급사	주간(03/17~03/23) 흥행 영화 관객수		주간 매출	누적 매출
<b>스즈메의 문단속</b>	<b>쇼박스</b>	주간관객수 (십만명)	누적관객수 (십만명)	102	232
더 퍼스트 슬램덩크	NEW	9.69	41.9	15	432
소울메이트	NEW	22.1		10	14
웅남이	CJ CGV	1.43	1.5	5	5
사점! 신들의 분노	위너브라더스	1.02	1.02	5	8
		0.54	0.54		
		0.50	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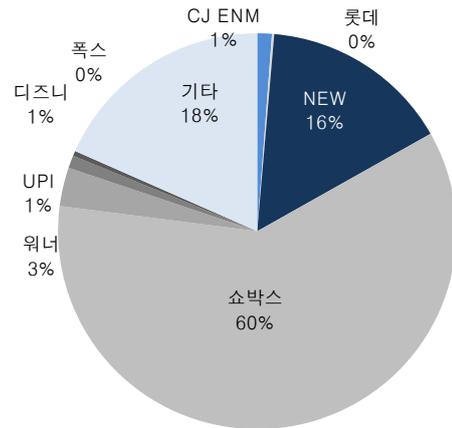
자료: KOF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3 주간 영화 관객수(만명) 및 매출액(억원)



자료: KOF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4 국내 영화시장 배급사별 주간 M/S



자료: KOF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7. 주간 코멘트

케이콘 태국, 넷플릭스 자막, 넷플릭스 광고, 디즈니+, 불법 콘텐츠 차단, 누누티비

ENM, 케이콘 태국	CJ ENM, 3/18~19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케이콘 2023 태국 개최 1. 세계 167개 국가·지역에서 온·오프라인 관객 513만여명 참석 2. 케이콘 시그니처 '팝피아' 세계관과 아티스트를 연계한 참여형 콘텐츠로 글로벌 관객 K-콘텐츠 경험 확장 3. 에이티즈, 뱀뱀, (여자)아이들, 아이콘, INI, ITZY, JO1, 케플러, 엠비셔스, 피원하모니, 템페스트, TNX, 싸이커스, 갓세븐 영재, 에이틴 등 참여 4. K-컬렉션에서는 CJ ENMOI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선정한 뷰티, 생활용품, 식품 등 5대 수출유망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 28개사 판촉전 개최 5. "케이콘 태국은 방콕 관객 성향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는데 주력했다. 5월 일본 도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더욱 확장된 '케이콘만의 쇼는 물론 각 지역 특색에 맞춘 콘텐츠로 세계 관객을 만나러 갈 것'"	기업
	■ CJ ENM의 음악 사업은 팬데믹 기간 동안 주요한 수익원으로 등극. 그 동안 케이콘 등 다양한 글로벌 행사를 개최한 경험의 결과물 ■ 케이콘은 단순한 음악 축제를 떠나서 K-컬처를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자리. ENMOI 최근 적극적으로 뛰어 들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 제작/공급도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긍정적
넷플릭스 자막	넷플릭스, TV 자막 설정 기능 도입 1. 3/20 넷플릭스, 개인 취향에 따라 자막 크기와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TV 자막 설정 기능' 도입 2. 자막 크기를 '작게', '중간', '크게' 등 3단계로 조절, 자막 스타일도 4가지 중 선택 3. "소음이 심한 곳이나 조용히 시청해야 하는 환경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막과 함께 콘텐츠를 보길 원하는 시청자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회원분들의 시청 경험을 증진할 수 있는 기능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산업
	■ 넷플릭스는 한국 진출 후 한국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는 빠른 배속 서비스 출시 등 소비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 중 ■ 넷플릭스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가입자 기반을 탄탄히 유지하면, 그에 비례해서 콘텐츠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긍정적
넷플릭스 광고요금제	넷플릭스 광고요금제 100만명 돌파 1. 3/20 블룸버그통신, 넷플릭스 내부 자료를 인용, 광고 요금제 출시 두 달 만에 미국에서 월간 활성사용자 수가 약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보도 2. 광고 요금제 사용자 수는 출시 첫 달에 500% 이상, 두 번째 달에는 50% 이상 증가했으며, 소식통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광고주들에게 언급했던 광고 수익을 달성했다고 알려짐 3.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에 가입하는 대부분은 신규 고객 또는 기간이 만료된 기존 고객으로, 기존 요금제를 변경한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조사 4. 광고 요금제 사용자는 현재 미국에서 신규 가입자의 약 20% 차지	산업
		긍정적

## 미디어 업종 주간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넷플릭스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가입자 기반을 튼튼히 유지하면, 그에 비례해서 콘텐츠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li> </ul>	
디즈니+ 이용자 증가	디즈니+ 이용자 증가	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21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디즈니+ 앱 설치자 수는 전년 동기 335만명에서 505만명으로 51% 증가</li> <li>2. 디즈니+는 자막 불량 등의 문제로 출시 한달 월간 이용자 수 200만명대 달성 후 바로 100만명대로 하락, 줄곧 100만명대를 유지한 후 22년말 &lt;카지노&gt; 공개 이후 200만명대 안착</li> </ol>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즈니+ 꾸준히 성장하면서 가입자 기반을 튼튼히 유지하면, 그에 비례해서 콘텐츠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li> <li>■ 올해부터는 한국 주요 제작사들과 콘텐츠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 조건은 넷플릭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li> </ul>	공정적
불법 콘텐츠 차단	불법 콘텐츠 전송 차단을 위한 법안 마련 추진	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사업자뿐 아니라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발의</li> <li>2. 누누티비는 최근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CDN 이용처를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에서 클라우드플레어로 전환, CDN 변경을 통해 누누티비 접속경로를 추적하는 데 혼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li> <li>3. CDN은 원본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해 네트워크 상에 복사 설치하고 접근을 분산시켜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효율화하는 서비스</li> <li>4. 과기부는 OTT 등 업계 요청에 따라 통신사인 ISP에 바뀐 URL 주소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해 지속해서 변화하는 우회 URL 주소를 차단 중</li> <li>5. CDN을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과 관련해 법 해석 등을 이유로 정부 요청에 소극적</li> </ol>	유료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더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되는 선순환 형성 가능</li> </ul>	공정적
	3/23 누누티비, '국내 OTT · 오리지널 시리즈 전체 자료 삭제 안내' 공지문 게시	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누누티비에 대해 이슈화돼 있는 국내 OTT · 오리지널 시리즈와 관련된 모든 동영상 일괄 삭제할 예정"</li> <li>2. "국내 OTT 피해에 대해 어느정도 수긍 하며 앞으로 자료요청 또한 국내 OTT 관련된 모든 자료는 처리 하지 않을 예정. 현재 국내 OTT 와 관련된 모든 일괄 삭제 시점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주 내로 모든 자료를 삭제 할 것"</li> <li>3. 지난달 2일 영상 업계가 '영상저작권보호협약체' 구성, 3/9 누누티비 사이트에 대한 형사고소장 제출</li> </ol>	유료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더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되는 선순환 형성 가능</li> </ul>	공정적	

##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희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